

북구시설관리공단, 카톡으로 폐기물 수거 안내

생활폐기물 수거 알리미 운영으로 주민 편의 향상

명절·공휴일 수거 일정과 변경사항 카톡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거 소식 알리미

카카오톡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주요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공휴일·명절 수거일정, 수거시간 변경, 긴급 안내 등 꼭 필요한 수거 정보를 카카오톡 채널로 신속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드려요

- 공휴일·명절 생활폐기물 수거일정 안내
- 수거시간 및 수거일정 변경 안내
- 기상 악화 등 긴급 공지사항
-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주요 안내

이용 방법

- QR코드 스캔
- 카카오톡 채널 추가
- 수거 소식 확인

이용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북구 주민 누구나

이용 안내
채널명 : 광주특례시 북구 생활폐기물 알리미
안내 : 수거일정 변경 등 주요 소식 발송

지금 바로 채널 추가하기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전남광주통합특례시북구시설관리공단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Buk-gu Facilities Management Corp.

생활폐기물 수거 소식 알리미 포스터

/광주 북구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북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생활폐기물 수거 정보를 주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생활폐기물 수거 소식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명절·공휴일 및 기상 상황 등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거 일정 변경을 주민이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배출 혼선과 불편을 줄이고,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명절·공휴일 생활폐기물 수거일정 및 시간 변경 ▲폭설·태풍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수거 지연·중단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주민 협조사항 ▲수거노선 개편 등 생활폐기물

관련 주요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카카오톡에서 '광주특례시 북구 생활폐기물 알리미' 채널을 검색하거나 홍보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채널을 추가한 주민은 수거 일정 변경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련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거 일정 변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해 배출 혼선과 불편을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신속한 생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수거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

고, 배출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명절이나 공휴일처럼 수거 일정이 평소와 달라지는 시기에 안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악화로 수거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주민 협조사항을 함께 안내해 올바른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힘을 예정이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안내 방식은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은 채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수거 일정과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기자

남구, 가을 물들이는 '굿모닝 양림' 열린다

16일 오후 6시 개막, 17일까지 열려

인기가수 자두·김정민·이기찬 등 출연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가을의 정취 속에서 인문학과 문화예술을 즐기는 제15회 굿모닝 양림 축제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양림동 일원에서 개최한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축제의 주제는 '사랑의 시간이 머무르는 마을'로, 양림동이 간직한 역사와 문화, 예술적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근대역사문화 마을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의 문을 여는 개막식 무대는 오는 16일 오후 6시부터 양림오거리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장천하 예술단과 광주 팝스 앙상블의 공연과 함께 개막식 선언 및

시 낭송이 진행된다. 또 오후 6시 45분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특집 공개 방송을 만날 수 있다. 인기 가수 자두를 비롯해 김정민, 이기찬, 김산옥, 강동명, 윤한나, 이상한 계절 등이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우일선 선교사 사택 일원에서 양림의 가을 낭만을 더하는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인문학 콘서트도 열린다.

16일에는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에는 국혜숙 작가가, 18일에는 한희원 화가가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공연장에서 강

연을 진행한다. 이밖에 축제 기간 양림동 곳곳에서는 전시 연계 행사로 광주 비엔날레 파빌리온 및 양림 골목 비엔날레를 만날 수 있다.

양림동 골목길을 따라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참여형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굿모닝 양림은 양림동의 역사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져 시민들과 함께 가치를 나누는 대표적인 가을 인문학 축제"라며 "깊어 가는 가을에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양림동에서 공연과 전시, 인문학 프로그램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 기간에는 양림동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인사들의 강연을 통해 삶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시민들에

게 인문학적 사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또한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과 양림 골목 비엔날레 등 전시 연계 행사를 통해 마을 곳곳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골목길을 따라 펼쳐지는 문화예술 공간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양림동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돼 남녀노소 누구나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양림동의 거리와 역사문화 공간은 축제를 찾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양림동이 지닌 근대역사문화 자산과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보탬 계획이다.

/박종수 기자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며 제15회 굿모닝 양림 축제의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광주 남구청 제공

문화관광 콘텐츠도시

무안으로 떠나는 여행..

대자연과의 축제 속으로 떠나는 여행!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무안으로 여행을 즐겨요~~

나들이하기 좋은 곳... 무안으로 떠나요~~

깊은비단 갯벌 인류와 공존하다
전국 최대규모 무안생태갯벌센터
박지모양 등대 보러오세요~
일출, 일몰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리포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호담 항공우주전시관
한국의 다도를 중흥시킨 다성(茶聖)
초의선사 탄생유적지

하늘과 땅, 바다 모두 볼게 물들다
낙조가 아름다운 톱머리 해수욕장
바다와 바람에 온 몸을 맡긴다
윈드서핑의 최적지 홀통유원지
백련, 진흙 속에서 순백의 꽃을 피우다
동양 최대 백련 자생지 회산백련지

사계절 관광명소

무안군